

왕대발에 왕대나고

효자제일교회 목사·홍 순관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곧 아무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세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남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취하되 실로에서 무릇 그곳에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려 그가 네게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취하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큼은 그들이 여호와와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세마포 예복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그 어머니가 매년제를 드리러 그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걸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 아내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드린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였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이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와 백성으로 범과케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그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었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개역, 사무엘상 2:12-26]

어떤 황제에게 못난 아들이 있고 아주 뛰어난 신하가 있습니다. ‘못난 아들에게 나라를 물려주면 나라가 얼마가지 못해서 망할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들면 황제의 자리를 아들에게 물려줄까요? 아니면 뛰어난 신하에게 물려줄까요? 어떤 영화에 신하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것을 아들이 눈치를 채고 황제인 아버지를 독살하고 스스로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뛰어난 신하를 죽이든지 내쫓지요. 못난 아들과 잘난 중, 어느 쪽을 선택할 거냐는 것은 참으로 고민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재산은 많고 회사는 큰데 물려 줄 아들은 정말 어리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종이나 사환은 아주 똑똑하고 일을 맡기면 참 잘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는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토지’의 한 장면에 양반 가문이 완전히 몰락해 버렸습니다. 그 가문을 일으켜 세우려는 딸이 하나 있었죠? 이름이 서희던가요? 그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할 때에 정말 똑똑한 사람을 신랑으로 맞아야 합니다. 누구하고 결혼하죠? 길상이라는 사람하고 결혼하죠? 종이었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같이 자라긴 했지만 부리던 종이었습니다. 양반의 딸이 종하고 결혼한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천지개벽할 일입니다. 그 사이에 얼마만한 고민이 있었고 얼마만큼 대단한 결심을 해야 그게 가능했겠느냐 말입니다.

본문을 보면 어쩌면 이것보다 더 심한 사례가 아닐까 싶은 얘기가 나옵니다. 사무엘과 엘리의 아들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당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도저히 그냥 둘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어리긴 하지만 자라나는 사무엘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때는 사사시대 말기입니다.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의 암울했던 시기입니다.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에 헤성같이 나타나서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간 사무엘이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이 등장할 그 즈음에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으로 서글픈 시대였습니다.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고 합니다. 엘리 아들들은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사죄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제사장이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더라고 합니다. 세상에 이런 서글픈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었는지 몇 가지 사례가 나옵니다. 13절부터 보십시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곧 아무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의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세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솥에나 그것으로 냄비에 찢어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취하되' 이게 어느 정도의 잘못인지 아시겠습니까?

뭐가 잘못된지 아셔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성경을 많이 배워서 말씀을 알고 계시면 성경을 읽을 때 그만큼 은혜가 더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데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7장을 보시면 화목제를 드리고 난 후에 그 화목제의 일부를 제사장의 몫으로 떼어 놓고 일부는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나눠 먹습니다. 그럴 때 제사장에게 주는 고기의 부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무 것이나 제사장이 가져가는 것이 아닙니다.

제물의 가슴과 우편 뒷다리만 제사장의 몫입니다. 그걸 아예 무시하고 '아무거나 찢어서 걸리면 다 내 것이다' 이 애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규정한 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진 규칙을 이렇게 무시하고 제사장이라고 해서 제멋대로 가져가는 것이 괜찮을까요? 거기에 대한 답변은 레위기 10장입니다.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가 성전에서 분향하다가 즉사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불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분향했기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이 불로 붙인 거나 저 불로 붙인 거나 다릅니까? 성냥불로 붙인 것과 라이터로 붙인 불이 다릅니까? 결과는 똑같은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불이 아닌 다른 불로 드렸다가 즉사해 버렸습니다.

웃사가 왜 죽었습니까? 소가 날뛰어서 법궤가 넘어지려고 하는데 어쩍니까? 붙잡아야 되지요! 그런데 왜 죽어야 합니까? 규정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 뒤에는 복잡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규정대로 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법궤는 반드시 채에 꿰어서 제사장이 운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안에 뭐가 들어 있을까 해서 들여다 봤다가 한 마을 사람들이 몰사하지 않았습니까?

제사 제물의 일부가 제사장의 몫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규정지어 놓은 것 외에 아무 것이나 쭈셔댈 게 아닌 말입니다.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규정을 마음대로 무시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들이 얼마나 악한 존재냐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면서 얼마나 분노하시며 서글퍼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15절 보십시오.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그렇습니다.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되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려 그가 네게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고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기름을 먼저 태운 후에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취하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기름을 태운 후에 가져가야 할 것을 태우기도 전에 내 놓으라는 겁니다.

기름을 태운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이 자기 몫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닌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먼저 와서 삶은 것 말고 생고기 내 놓으라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기가 참 쉽습니다. 우리 어릴 때 아버님이 순가락 들기 전에 우리가 먼저 들면 난리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집안에 어른이 누구냐를 배우는 겁니다.

낮에 아버지는 일 하러 가고 안 계시는데 옆집에서 떡이라고 가져왔습니다. 먹을 수 있습니까? 꿀떡 꿀떡 거리면서도 저녁에 아버지가 돌아오시기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밥상에서 먼저 순가락 들고 먹어 치우면 어떻게 됩니까? 요새는 그런 것 다 사라져 버렸지요? 어른이 계시는데 아이들이 건방지게 함부로 손댈 수 없었습니다. 현재도 지켜져야 할 예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내 놓으라고 하는 게 얼마나 심각한 범죄겠습니까?

말이 난 김에 가정의 중심이 아버지입니까? 아들입니까? 좀 찢리는 데가 많이 있지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가정은 부부중심이어야 합니다. 내게 맞지 않더라도 어쨌든 가정을 위해서는 남편이 가정의 어른이고 주인이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나타낼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 없을 때 화가 심하게 나면 딸에 남편이라고 한 소리 할 때 하더라도 그래도 세워줘야 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가정의 중심은 남편이고 부부이어야 하지 아이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정의 중심이 하나님입니까? 아이들

입니까?

믿는 집안의 가장 중심이 되는 분이 하나님 맞습니까? 아이입니까? 아이가 중심이 되어 있는 가정은 참 위험한 가정입니다. 29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책망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인데 잘 보세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엘리의 죄가 뭘지 아십니까?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다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 집의 가장 큰 어른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분명하게 인식시켜 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큰 어른, 그 다음에 아버지, 그 다음에 너, 꼴찌! 이러면 아이들의 인격이 무시됩니까? 아이들이 멸시당하는 겁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그게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런 가정에서 아이들이 튼튼하게 자랍니다. 아이들이 자기가 가장 큰 어른인줄 알고 나대는 가정 있지요? 위험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여호와께 드려야 하는 이 제사를 멸시하게 된 근본 동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들이 제사 드리는 일을 어쩌면 익숙하게 잘 해낼지 모릅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서 보았고 하던 일이니 잘 할지도 모릅니다. 일은 잘 할지 모르는데 그 일이 무슨 의미이며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것을 몰랐더라는 겁니다. 일하는 요령은 잘 배웠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더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면서 제사 드리는 일만 잘 하면 어떻게 됩니까? 뭘 먼저 배워야 합니까?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른 채 교회를 섬기고 열심히 일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만나기만 하면 누가 나이가 많은지 꼭 따집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쩔 수 없나봐요. “호적신고가 3년이나 늦은 거다.” 이라고 싸우잖아요? 남자들은 군번가지고 따집니다. 저도 요즘은 기죽는 것 중에 하나가 “신대원 몇 회 졸업생입니까?”라는 말입니다. 목사님들 중에 뒤에는 아직 없습니다. 묻지 마세요. 대학생들은 만나면 “몇 기세요?” “몇 학번이세요?” 이래서 내가 선배면 한 수 깔보고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는 얼마나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얼마나 열심히 잘 하고 열심히 있고 능력 있고... 이런 것들은 그 다음입니다. 교회 직분은 절대로 계급이 아닙니다. 교회의 직분을 왜 세웠습니까? 섬기라고 세운 직분이니 계급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직분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제사장인데 왜 내 마음대로 못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규정마저 무시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자기가 먼저 챙겨먹고 그랬단 말입니다. 제사장들이 이러니 그 밑에 있는 사환들도 흔히 하는 말로 하면 꾀발을 부리는 겁니다. 건방지게 노는 겁니다. 제사장이 가져오라 하신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찢러대고 자기 마음대로 가져가고 이런 것을 제사장의 사환들이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니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이런 일이 없습니까? 교회 안에도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무리 다수로 결정을 해서 교회가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해도 “내가 안된다고 하는데 그게 왜?” 이러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내가 안된다고 하는데 지그들이 한다고 한번 해봐 되는가?” 이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무서운 범죄행위입니다. 매일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하니 이런 무지막지한 것을 하는 겁니다.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마치 계급처럼 알고 행패를 부리는 거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가 제사장으로 있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이 설마 있겠습니까마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 예수를 믿지 않는 자가 담임 목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설마 안 믿는다고 말이야 하겠습니까? 믿는다고 하겠죠?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목사로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 사람에게 고통을 줄 것입니다.

온 백성의 죄를 지고 가야 할 제사장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비극의 원인입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께서 말끝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십니다. 에스겔서에서는 거의 매 장에 한 번씩 나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너희가 이 고생을 하는 것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애굽 백성들이 왜 재앙을 받습니까? 이 재앙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뒤집어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몰라서 이 고생을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출애굽기에도 여러 번 나옵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세상에, 제사장이 모르고 있으니 그 다음에 불행한 이야기가 이어질 것은 너무나 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허락하셨던 약속을 취소하고 대신에 새로운 제사장을 세우실 것이라고 합니다. 너희 가정에 노인이 없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모두가 복을 받아도 엘리 집안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 집안에 이렇게 징계를 가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너무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픔을 얼마나 당하셨는데요? 사사시대, 400여년 되는 그 긴긴 시간을 참고 참고 참았다가 결국은 엘리의 집안에서 폭발하고 마는 겁니다. 왜 이런 비극이 생겨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누구와 관계된 것인지 누구에게 드리는 것인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를 드리면서도 실제로 하나님을 모르는 이런 서글픈 시대에 하나님의 새로운 처방이 하나 보입니다. 어린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언제부터 성전에서 자랐습니까? 그 어머니가 젖을 떼 후에 성전예다 맡겼습니다. 그러면 우리 나이로 세 살 정도 되었겠지요. 사무엘이 훗날 위대한 사사로 자라나지만 여기서는 사무엘보다 이 아이를 맡겨 놓은 한나를 칭찬해야 합니다.

한나를 어떤 어머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젖 떼자마자 어린 아이를 성전예다 맡겨버린 엄마! 여러분, 뭐라고 평가하겠습니까? 신앙이 좋은 어머니라고 하겠어요? 저는 독한 어머니라고 하고 싶습니다. 독한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어디 보내고 난 다음에 눈물을 지울까요? 군대! 그렇지? 요즘은 아들이 군대 가니까 엄마보다 더 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웬 여자아이가 그렇게 울어요. 엄마가 울 겨를도 없어요. 우는 것 곁에서 지켜보니까 재미있더라고요. 아들을 군대 보내놓고 우는 엄마 그 정도 같으면 말도 안합니다.

유치원에서 1박2일 캠프 보내면서 웃는다. 코미디도 아니고... 유치원 아이들 1박2일 캠프 가는 것 그게 뭐라고? 그게 그렇게 안쓰러워서 울고 있다가 이튿날 돌아오죠? 무슨 이산가족 상봉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 다 키워봐도 마찬가지지요? 시집 간 딸 김장해 줘야 합니까? 말은 출가외인이라면서요? 시집간 딸네집에 가서 청소해 주고 김장해 주는 것 그만 하세요. 죽을 쑤든 밥을 쑤든 내버려둬야 자기들 살림을 할 것 아닙니까? 독립시켜야지요. 그거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시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이 한나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자식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세상에 젖 떼 아이를 갖다가 성전에 놔 놓고 돌아서는 엄마요? 이거 어떤 엄마입니까? 그러니까 지독한 엄마라고 하지요.

한나가 원래 이렇게 독한 여자였습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지독한 여자가 되었습니까? 사무엘상 처음에 읽어보면 서러움에 겨워서 눈물 뿌리던 여자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아이 하나 주세요." 하고 술 취한 사람처럼 울며불며 엎드려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이 하나 얻는 것이 평생 소원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하나 얻었습니다. 그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기도할 때 한 가지 실수를 했습니다.

1장 10절 끝에 보면,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 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고' 이 서원기도를 했거든요. '아들 주시면 평생에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라고 해버렸단 말이예요.

아들이 없을 때 통곡하며 기도했는데 아들을 얻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 핑계 저 핑계 대가면서 미루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약속은 지키겠습니다. 이 어린 것 좀 키워가지고...' 몇 살까지 키워 가지고 하나님께 바치겠습니까? 그런데 한나는 그 서원대로 젖 떼자마자 성전에 갖다 놓은 겁니다. 아, 지독한 엄마입니다. 왜 지독한 여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드린 서원 때문입니다. 서원을 지키느라고 이렇게 독한 여자가 된 겁니다.

한국의 어머니가 대단하긴 대단해요. 초등학교를 외국에 유학을 보낸다고 해요. 얼마 전에 보니까 호주

로 초등학생을 유학을 보내려면 부모가 반드시 동행해야 된다는 조건을 호주에서 달았다고 합니다. 그 전에는 그냥 보냈는가 봐요. 문제가 생기니까 보호자가 따라가서 해 놓고 적당한 선에서 돌아오기도 하고 아니면 붙어 있기도 합니다. 보호자 동반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데도 초등학생을 왜 유학을 보냅니까? 아이들에게는 제일 끔찍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엄마는 그렇게 서원했다고 치더라도 쫓 떼자마자 성전에 버려진 사무엘에게는 얼마나 끔찍한 일이었을지 생각해 보세요. 그럼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 서원한 그 기도 때문에 독한 마음을 품었고 그 덕분에 위대한 사무엘이 등장하게 됩니다. 한나가 이렇게 독한 일을 하게 된 것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앙고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장 6절을 보세요.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와서 긴 찬양을 드립니다. 그 중간에, ‘여호와께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버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께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죽이시든 살리시든 그건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죽여도 감사하고 살려주셔도 감사하다는 뜻입니다. 가난하게 하시는 것, 부하게 하시는 것,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자식을 죽이든지 마시든지 내가 할 일은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일밖에 없습니다.’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아들을 낳았으면 그 아들을 안고 성전에 와서 뭐라고 기도해야 정상입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입니다. 얼마나 잘 생겼나 보세요. 감사합니다. 아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는 법 아니에요? 한나는 성전에 나와서 아들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한나가 어떤 신앙을 갖게 되었는지 잘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어머니에게서 위대한 사무엘이 자라난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제사장들이 온갖 망나니짓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 목 놓아 울던 한나는 이렇게 위대한 신앙을 소유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위대한 지도자를 키우고 있었던 겁니다. 엘리와 가정과 얼마나 대조되는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가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한나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그 갓난아이를 어떻게 성전에 맡기겠습니까? 엘리는 부족함이 없는 가정에서 아이들을 ‘오냐 오냐’ 하고 하나님보다 더 귀중하게 키워왔더니 하나님도 몰라보는 불량자가 된 겁니다. 우리나라 옛말도 있지 않습니까? 손자를 ‘오냐 오냐’ 하면 할아버지 수염이 남아나지 않는답니다.

그렇게 아들들을 귀하게 여기니까 나중에는 아들들을 책망해도 듣지 않습니다. 23절 보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이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힘없이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백성으로 범과케 하는구나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판결하겠느냐 하되 그가 그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라고 말합니다.

어릴 때부터 잘 키워야 하는데 대충 키워놨다가 머리 굵은 아들에게 말한다고 됩니까? 이 아이들은 결국은 아버지의 말조차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사사시대 말기에 정말 어둡고 캄캄하던 시절에 지독한 어머니가 아이를 지독하게 키우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위대한 지도자가 등장하는 겁니다. 이걸 옆에서 지켜보던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20절 중간에,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드린 아들’이라고 합니다. 어머니의 위대한 신앙, 지독한 신앙에서 위대한 인물이 자라는 겁니다.

요기서 8장 10절에 ‘왕골이 진펄에서 나겠으며 갈대가 물 없이 자라겠느냐’고 합니다. 우리말 속담에도 ‘왕대발에 왕대나고 쑥대발에 쑥대난다’ 맞나 모르겠어요. 용장 밑에 줄장 없다는 말도 있고 강한 부모 밑에서 강한 자녀가 난다, 즉 엄부시하에서 효자가 납니다. 왕골은 진펄에서 나는 법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의 이런 신앙 속에서 이런 위대한 아들이 자라나는 겁니다. 간혹 부모가 개판을 쳐도 아이들이 훌륭하게 자라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사 시대가 정말 혼탁한 시대였습니다.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아가는 그 때에 정말 혜성같이 나타나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간 사무엘에게는 신앙적으로 위대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대체로 어둡고 답답합니다. 오늘도 어느 분이 자기가 속한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참 힘들어 하시더라구요. 어떻게 격려해 주거나 위로해 줄 말이 없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은 어찌할 수 없더라도 우리 자녀만은 신앙의 왕대로 키워야 합니다. 부모가 왕대밭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왕대가 자라게 할 것입니다. 부모가 진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왕골이 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아이들을 통해서 이 어두운 곳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실 것입니다.